

청자운반선 침몰

강릉김씨가 개경으로 떠난 뒤 탐진 도공들은 비상이 걸렸다. 개경에 있는 왕실 원찰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향로를 주문했기 때문이었다. 청자운반선은 이미 스님의 발우 묶음들과 두꺼비 모양벼루, 사자모양뚜껍향로 등 청자기물 2만7천여 점을 모두 선적한 상태였는데, 왕실 원찰에서 특이한 향로를 뒤늦게 부탁했던 것이다. 왕실 원찰의 주문은 사실상 왕이나 왕비가 지시한 것으로 봐야 옳았다. 대구소 향리는 청자운반선의 출발을 지연시켜 놓고 탐진 도공들을 독려했다.

“서울의 화원이 향로 그림을 그려 보냈으께 다행이네. 근디 도공 한 명이 해결할 일은 아니네. 여러 명이 수십 개를 만들어 봄 가마에 불을 때고 나서 최상품을 골라볼세.”

“왕실에서 우리덜을 많이 도와주었으께 이번에는 우리가 값을 차례지라우.”

“수십 개를 만들어 불을 때 보든 최상품 서너 개는 나오겠제잉.”

“만들기는 허졌는디 가마 불이 우리덜을 도와줘야겠지라우.”

화원이 그린 향로대로 성형은 하겠지만 유리질 광택이나 비색청자 빛깔은 가마 불에 달려 있다는 말이었다.

“탐진 비색청자를 송나라 태평노인이 천하제일이라고 했다는디 이

향로를 잘 맨들기만 한다든 천하제일의 보물이 될 거 같으네.”

행수도공이 된 김씨가 말했다.

“지털 탐진 도공덜이 향로 그림대로만 맨든다든 이 시상에 둘도 없는 귀물이 되겠지라우.”

“암은, 그라고 말고.”

대구소 향리 앞에 모인 도공들이 고개를 크게 끄덕거렸다. 개경 왕실 원찰에서 보낸 향로 그림을 보고 있던 인주에서 나전칠기를 만들다가 탐진으로 내려와 도공이 된 이씨가 말했다.

“향로 그림대로 만들더라도 전복껍데기로 상감하기는 불가능할 거 같습니다. 향로 그림이 워낙 정교합니다요.”

그가 놀란 대로 향로 그림은 몸체에 얹힌 뚜껑의 공예가 정교하기 짝이 없었다. 몸체는 세 개의 사자다리뿐이었는데 뚜껑은 관세음보살 좌상으로 그려져 있었다. 그림은 정면과 측면, 후면까지 세 부분으로 자세하게 표현돼 마치 실물 같았다. 뚜껑의 맨 하단은 연꽃잎이 아래로 향한 좌대였다. 그 연화좌대 위에 공작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공작새의 목은 직각으로 길게 세웠고, 머리 깃은 약간 뒤로 누운 채 길었으며, 눈동자는 선명했다. 또한 공작의 몸에는 접은 깃이 촘촘했다. 공작 위에는 세 겹의 연꽃잎이 위로 향하는 좌대가 또 하나 더 있었고, 관세음보살은 바로 그 양련좌대(仰蓮座臺) 위에 반가부좌를 틀었는데 자연스럽기 그지없었다.

관세음보살의 표정 또한 살아 있는 듯 생생하고 자애로웠다. 반가부좌한 자세였으므로 오른발만 흘러내린 하의 옷자락 사이로 슬쩍 보였다. 상의는 왼쪽 어깨에만 걸치고 오른쪽 어깨와 가슴은 그대로 드러났고, 오른팔은 편안하게 오른쪽 다리 위에 놓았는데 엄지와 검지로 길쭉한 열매를 쥐고 있었다. 왼손은 가슴까지 올린 채 가늘고 짧은 여의봉을 들고 있었다. 열매는 중생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여의봉은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일 터였다.

반개한 눈은 중생을 굽어보듯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으며, 머리는 곱슬머리였다. 그리고 그 곱슬머리 위에는 부처가 새겨진 작은 관(冠)이 얹혀 있었다. 귀에 걸린 귀걸이의 장식인 세 가닥 실은 가슴까지 내려와 두드러졌다.

측면 향로 뚜껑의 그림은 관세음보살 등 뒤의 광배를 잘 표현하고 있었다. 등 바로 뒤는 타원형의 민무늬이고, 얼굴 바로 뒤도 역시 둥근 민무늬였다. 그 민무늬에서부터 밖으로 세 겹의 연꽃과 가장자리는 화염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의 양쪽 손목에 찬 동그란 팔찌도 잘 눈에 잘 띄었다.

후면 향로 뚜껑의 그림은 밑에서 양련좌대까지 흘러가는 구름이 겹겹이 포개져 있고, 구름 위에는 여섯 그루, 다섯 그루, 네 그루 식으로 세 겹의 나무들이 그려져 있었다. 나무들 위의 타원형 광배는 민무늬였는데, 그것은 끝없는 하늘을 상징하는 듯했다.

대구소에 모인 도공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처음에는 만들어 보겠다고 마음을 냈지만 차츰 향로 그림의 정교함에 기가 질려 뒷걸음질 쳤다. 인주에서 온 이씨가 말했다.

“향리 나리, 이 향로를 만들어 볼 사람은 그림이 한 장밖에 없으니 당전마을 대구소 가마로 와서 흙을 만져야 하겠습니까.”

“그림이 하도 까다로운 데다 한 장밖에 읊응께 돌려감시로 봐야겠제. 공께 이 도공 말대로 여그 와서 그림을 봄시로 맨들어야겠제.”

대구소 향리 말에 몇몇 도공은 포기했다. 자기 가마를 떠나 당전마을까지 와서 만든다는 것은 몹시 불편한 일이었던 것이다. 그래도 몇몇 도공은 왕실 원찰의 향로를 만드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개경에 알리는 일이므로 포기하지 않았다. 날마다 당전마을로 내려와서라도 만들겠다고 결심했다.

“에렵졌지만 지가 한 번 해볼라요.”

“지는 가을 가마 청자덜이 그런대로 나왔응께 여유가 쪼깐 있그만요. 시안을 남시로 맨들어볼께라우.”

“한 번 해보고는 잼은디 지는 워낙 손재주가 읊어서 에렵졌그만이라우.”

대구소 향리는 안도했다. 도공들 모두가 기가 질려 손을 뗄 줄 알았는데 몇몇이 동조해주었기 때문이었다. 봄 가마에 불을 때기까지는 차갑고 굵은 날씨가 잦은 겨울이므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기물을 성형하고, 손질하고, 물질하고, 말리는 시간이 아주 부족한 것도 아니었다. 겨울에 성형했다가 따뜻한 봄바람에 말리면 얼마든지 시간은 맞출 수 있었다.

보름 후.

공작관음향로를 만들겠다는 탐진 도공은 세 명으로 줄어들고 말았다.

향로가 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그림을 볼수록 겁이 났고,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나마 남은 세 명은 쌍계사를 오르내리며 기도의 힘으로 버티었다. 행수도공이 된 김 도공도 포기했다. 대구소 향리를 찾아가 하소연했던 것이다.

“향리 나리, 지는 손재주가 읊는개비라우. 지금까지 열 개를 맨들어봤는디 다 모양이 이상해서 버렸그만요. 명색이 행수도공인디 한참 후배보다 못헌께 자존심도 상허고라우.”

“자네가 맨든 청자항아리는 다 알아주는디 향로는 아닌가보네. 궁께 자네 맘대로 허소.”

“지가 잘허는 것만 헐라요. 뱀새가 황새 송내 내다가 다리가 찢어져 불겠그만요.”

“그런 소리 마소. 자네는 뱀새가 아니여. 자네 청자를 서울 사람덜이 올때나 좋아허는디 그런가.”

“시방 향로를 맨드는 최씨, 조씨, 이씨는 잘 허고 있는 거 같그만이라우.”

“수십 명에서 인자 시 명만 남았는디 앞으로는 가마 불이 심판허겠제잉.”

“불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공들여 봤자 물거품이지라우.”

행수도공마저 빠지자 남은 도공 세 사람은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대구소 향리가 틈나는 대로 그들을 찾아와 격려했으므로 마음을 다잡았다.

“자네덜도 대구소 군사에게 지급허는 거 멩기로 보리쌀과 조를 주겠네. 향로를 맨들러 여그 오는 날짜대로 말이네. 궁께 끼니 걱정 말고 잘 맨들기만 허소.”

“인자 감이 쥌히는그만요. 인주에서 온 아재가 도와준께 그라제 지덜

제주로는 택도 읍지라우.”

인주에서 나전칠기 목기공예품을 만들다가 탐진으로 내려와 도자기를 굽는 이씨가 연꽃이나 구름 등의 문양을 음각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공작관음향로를 만들고 있다는 도공 조씨의 고백이었다.

미산포 포구에는 청자운반선이 벌써 네 달째 기다리고 있었다. 탐진 도공들이 만든 청자를 선적한 채 작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빈둥거리며 대기했다. 선원들이 타지에서 가지고 온 젓갈류도 남김없이 보리쌀과 조, 감자 등과 모두 물물교환 해버렸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할 일도 없었다. 선장은 가끔 대구소로 올라와 향리와 술을 마시기도 하고 당전마을로 내려가 도공들이 만드는 공작관음향로를 구경하기도 했다. 대구소에서 관리하는 가마에 공작관음향로를 재입하기 전날이었다. 선장은 대구소 향리에게 말했다.



“향리 나리. 포구에 정박한 지 네 달이 됐습니다. 인자는 출발해야 다음 행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넌 기물덜을 재입헌께 메칠 만 지다리믄 되겠지라.”

“이왕 늦어졌으니께 왕실 원찰에서 주문한 향로가 잘 나왔으면 좋겠

십니데이.”

“도공덜이 당산나무 아래서 청해대사 장군상을 모셔놓고 제사 지내고, 또 일부는 쌍계사로 올라가 도공선조님(陶祖)께 제사를 모셨으께 잘 나오겼지라.”

대구소 향리가 주관하여 공작관음향로를 만들어왔으므로 누구보다도 그가 가장 긴장하고 있는지 몰랐다. 실제로 대구소 향리는 봄 가마에 불을 땀 다음날부터 쌍계사는 물론 만덕사, 성문사(현 금곡사), 무위사, 월남사에 가서 하룻밤씩 묵으며 기도했던 것이다. 법당 불단에는 청자 정병이 놓여 있었다. 대구소 향리는 어느 절에서나 꼭두새벽에 샘물을 길어 청자정병에 담아 불단에 올리는 정성을 들였다. 백제 때 창건한 월남사에서는 당나라 것으로 보이는 청동정병이 대구소 향리의 눈길을 오래도록 끌었는데, 그 정병에는 금사입과 은사입한 문양이 신비로웠던 것이다. 금과 은으로 문양을 만들어 새겨 넣은 정병을 난생 처음 보았기 때문이었다.

대구소 향리는 월남사에서 말에 올라 서둘렀다. 당전마을 대구소가마에서 향로와 그밖에 청자 기물들을 꺼내는 날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대구소로 오던 중 자드락길에서 말이 헛발을 디딘 탓에 낙마해 허리를 다쳤다. 골절 같은 큰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허리가 결려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으므로 한 나절을 산속에서 허비했다.

대구소 향리가 가마에 도착했을 때는 기물들을 이미 다 꺼내놓고 도공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청자운반선 선장과 선원들도 와서 청자 기물들을 구경 중이었다. 그런데 도공들의 표정이 모두가 어두웠다. 이 도공은 울상을 짓고 있었다. 대구소 향리는 공작관음향로가 실패했다고

직감했다. 한 도공이 대구소 향리에게 다가와 말했다.

“향리 나리, 면목이 읍그만요.”

대구소 향리도 실망하여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말에서 떨어진 것이 불길현 징조였그만.’

과연, 한데 모아놓은 공작관음향로의 빛깔은 하나같이 황갈색이거나 잿빛의 뇌청색이었다. 공작의 눈동자 하나가 불길에 지워져버린 향로도 있었다. 비색을 내지 못한 향로는 하품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비색이 아니면 탐진 청자라고 할 수 없었으므로 망치로 조각조각 깨서 버려야 했다. 그러나 대구소 향리는 도공들에게 황갈색 공작관음향로를 깨지 말라고 지시했다.

“가실 가마가 있으니 실망하지 말게. 향로는 깨지 말고 각자 하나씩 가져가 모양을 눈으로 익히게. 이번에 한 번 맨들어 봤응께 가실에는 더 나아질 것이네.”

그러자 옆에 있던 선장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향리 나리, 선원덜은 여그서 가실까지 지다릴 수가 읍습니다.”

“으쩍 수 읍응께 인자 떠나씨요. 서울에 가시믄 가실쫘에 향로를 보내겠다고 알려주씨요.”

대구소 향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선장과 선원들은 지체 없이 대구소

가마를 떠났다. 선원들은 향로만 나오면 바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청자운반선은 인종9년(1131) 늦은 봄날 오후 늦게 미산포를 떠났다. 그런데 향로는 선원들에게 특별한 기물은 아니었다. 대구소 향리가 붙들었기 때문에 항해를 지연했을 뿐이었다. 청자운반선에 선적한 청자만 해도 2만 7천여 점이었으므로 어마어마한 양이었던 것이다. 그 청자 꾸러미들은 대부분 목간이 붙어 있었다. 주인이 정해져 있거나 중간 인수자 내지는 중간상인이 표시돼 있었던 것이다.

탐진바다를 빠져나온 청자운반선은 가리포에서 북쪽 흑수바다로 접어들었다. 먼 바다로 나가지 않고 해안을 따라 항해하는 것이 바닷길을 놓치지 않고 개경까지 올라가는 항해비법이였다. 선장이 우두머리 돛잡이에게 물었다.

“시방 울돌목 조류는 으쩍지 말해보이소.”

“어둑어둑해지믄 썰물로 바뀌어 항해가 쪼깐 심들지라. 근디 마과람이 뒤에서 밀어준께 다행이그만요.”

신시(申時, 오후 5시-7시)부터 바닷물이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빠지는 썰물이므로 개경으로 올라가는 청자운반선이 느려지겠지만 계절풍인 마과람을 돛에 받으니 다행이라는 돛잡이의 말이였다. 그래도 울돌목은 바다가 좁아 물살이 빠르고 양쪽 가장자리는 언제나 소용돌이치는 와류가 있어 조심해야 했다. 더구나 와류가 흐르는 가장자리 바다 밑에는 뽕쪽한 갯바위들이 솟아 있었다. 때문에 배가 좌초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저녁끼니는 어데쯤에서 하는기 좋을까?”

“울돌목에서 쪼깐 더 올라가믄 장산도, 보화도가 나오지라. 보화도가믄 캄캄헐 것이지라. 공께 장산도가 좋겠그만요.”

선장은 돛잡이 말을 신뢰했다. 바람을 누구보다 잘 알고 바닷길을 환히 꿰뚫고 있기 때문이었다. 돛잡이는 조운선을 탈 때 개경까지 수십 번 드나들었던 노련한 선원이었던 것이다.

그의 말대로 청자운반선은 장산도에서 저녁끼니를 해결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정박했다. 선원들은 모두 11명이었다. 선실은 청자를 차곡차곡 쌓은 창고였으므로 선원들은 갑판에서 생활했다. 돛대 바로 밑에도 작은 선실이 있었는데, 선장이 잠을 자고 취사도구들을 챙겨놓은 곳이었다. 밥그릇과 숟가락, 젓가락은 모두 청동 제품이었다. 선원들이 청자밥그릇과 청자수저 청자반찬그릇을 사용하지 않는 까닭은 풍량이 거친 바다에서는 실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청동그릇들은 청자그릇에 비해 배가 심하게 요동칠 때도 서로 부딪치어 깨지는 일이 없었다. 선원들 중에 돛잡이가 선장에게 말했다.

“장산도에서 하룻밤 푹 자고 널 새벽에 떠나자는 선원들이 많그만요.”

“탐진에서 많이 쉬었데이. 그라니까네 자정에 출발할기라. 가는 등마는 등 하다가 늦장마 태풍이라도 만나믄 큰일인기라.”

“밤중에 바닷길이라도 잃으면 더 늦어지지 않을게라우?”

“자네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기라. 자정부터 밀물이 시작되니까니 그 심으로 쪼메라도 빨리 올라가야 한데이.”

계절풍인 마파람까지 만나면 더 좋겠지만 바람이 잠잠하면 밀물의 힘을

빌려서라도 항해속도를 내야만 20일 안팎에 개경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선장의 지시나 결정은 바뀌는 일이 드물었다. 청자운반선이 자정에 출발한다고 선장이 말하자 선원들은 장산도 바닷가에 즉시 임시로 술을 걸고 술방울로 쌀이 들어간 조밥을 했다. 반찬은 가리포 전복 젓갈과 탐진에서 구한 더덕장아찌를 꺼냈다. 가능한 한 빨리 먹고 승선해 갑판 한쪽에서 토막잠이라도 자두려고 그랬다.

다음 정박지는 영광 범성포라고 하니 이른 아침에야 그곳에 닿을 수 있을 터였다. 잠이 부족하면 영광 범성포에서 한 나절 동안 푹 잘 수 있었다. 영광에 이를 때쯤 썰물이 시작되므로 굳이 항해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썰물 동안 청자운반선은 배 밑이 평평하기 때문에 갯벌 위에 얹혀 있어도 안전했으므로 선원들은 걱정 없이 자거나 쉴 수 있었다.

청자운반선은 선장이 생각한 대로 항해했다. 차질 없이 해안 바다를 따라 북쪽으로 항해했다. 군산도에서는 섬에 내려 송나라 사신을 영접하는 누각에 오르는 등 여유를 부리기도 했다. 몇 년 전 접반사 김부식 등이 송나라 사신 일행을 누각으로 초대해 접대한 일이 있었던 것이다.

청자운반선의 돛이 바람을 한가득 받아 속도를 낼 때는 선원들의 사기는 더 올라갔다. 선장은 돛대 밑의 선실로 들어가 안심하고 낮잠을 잤고, 선원들은 갑판에서 조약돌에 차(車)나 포(包) 등 글씨를 쓴 장기알과 장기판을 갖다놓고 장기를 두곤 했다.

“장군 받아부러!”

“멍군인디 으쩔래!”

훈수를 두는 선원들이 어어어! 하고 더 흥분했다. 그런데 청자운반선이

군산도에서 이틀을 머문 뒤 충청도 태안 안흥량에 이르렀을 때였다. 늦장마 먹구름이 순식간에 몰려오더니 대낮이 한밤처럼 캄캄해졌다. 잠시 후에는 천둥번개가 쳐댔고 장대비가 물동이로 물을 퍼붓듯 쏟아졌다. 그런 뒤였다. 격렬한 돌풍이 청자운반선을 삼킬 듯 높다란 파도를 끌고 왔다. 선원들은 돌변한 날씨에 당황했다. 선장이 고향을 지르자 돛잡이는 돛을 내렸다. 청자운반선은 갈피를 못 잡고 파도를 타고 오르내렸다. 선장이 계속 소리쳤다.

“갑판에 엎드려라! 파도에 쓸리몬 죽는데이!”

“선장님! 이물에 물이 차고 있어라우!”

“모다 이물로 가서 물을 푸그래이!”

“선장님! 고물에도 물이 차고 있습니다!”

돛잡이가 울면서 선장에게 소리쳤다.

“인자 끝났어라우. 배를 버려야 살 수 있어라우.”

안흥량 주변에는 조류 변화가 심한 데다 암초가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배는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선원들이 여전히 갑판 위에서 갈팡질팡했다. 이윽고 선장이 결단을 내렸다.

“선원들은 배를 버리그래이! 바다로 피신하그래이!”

“하늘이 원망스럽그만요.”

“우짜든지 살아야 또 만날 수 있데이!”



선장은 울고 있었다. 선원들이 바다로 다 뛰어내린 것을 확인하고는 배를 버렸다. 그 순간 청자운반선은 왼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다가 다시 떠올라 오른쪽으로 잠겼다. 그러기를 몇 번 반복하더니 그대로 쭉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 바다가 삼켜버린 듯 청자운반선이 잠긴 자리에 흰 포말이 한동안 떠 있었다. 그러나 큰 파도가 달려오더니 흰 포말마저 흔적도 없이 지워버렸다. 어느새 선원들은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하루 뒤.

안흥량 바다는 순하게 바뀌었고 하늘은 푸르렀다. 어제 대낮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면서도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안흥량에 파견 나온 군사들이 수색을 했지만 청자운반선의 널빤지 한쪽도 발견하지 못했다. 청자운반선이 통째로 바다 속으로 침몰해 버렸기 때문이었다.<계속>